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 아래로 ·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0호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일선 사찰은 'Zero타임'

[사찰이 안전하지 않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실태

2016년 3월, 가톨릭 수원교구의 한 성당에서 운동을 하던 한 신부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 신부에게서는 쇼크와 함께 심정지 현상이 나타났다. 다행이 이 성당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었다. 옆에 있던 한 신도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쓰러진 신부를 응급처치해 구했다. 이후 가톨릭 수원교구는 6월까지 산하 75개 성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했다.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 제세동기)를 설치한 공공기관과 종교시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찰은 극소수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도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종단 무관) 124곳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10곳만이 이를 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된 사찰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해 제주 관음사, 단양 구인사, 양양 낙산사, 대구 동화사, 양산 통도사, 낙산 묘각사, 수원 용주사, 부산 홍법사 등이다. 나머지 사찰 114곳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존재 여부도 모르는 곳이 많아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은 매년 3만 309건으로 2000명 당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고령화 등으로 이 수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정지 발생 후 생존율이 4.9%에 불과하다. 심정지 환자의 생명이 달린 심정지 발생 초기 4분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응급기기 미비가 주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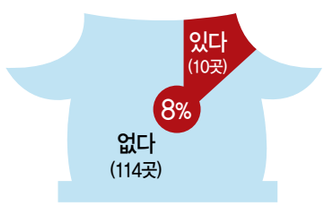
자동심장충격기는 이 골든타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환자에게 심장전기충격이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분석해 구조자에게 심장전기충격을 하도록 알려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설치시 처벌 규정은 없어 자발적인 설치만 이뤄지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승준 간사(명지병원 응급의학과)는 "심장마비는 고령일 수록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며 "사찰의 경우 대중 대부분이 어르신들일 뿐만 아니라 병원 후송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응급장비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계의 미미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상황에 비해 이웃종교계는 이미 대부분 설치를 완료했거나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국내 주요 대형교회는 조사 결과 각각 1대 이상씩 설치돼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 전문업체 라디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회 42곳에 설치됐다. 가톨릭의 경우 앞서 수원교구 75곳을 시작으로 전국교구에 설치가 시작되고 있다.

AED, 심정지 생존 '필수 기기'
사찰 124곳 중 단 '10곳' 설치
존재 여부도 모르는 곳 태반

템플스테이 사찰 AED 설치 실태



고령일수록 심장마비 확률↑
이웃종교계, 본격적으로 설치
일선사찰 "비싼 가격에 주저"

사업단 · 조계종 필요성은 인지
프로젝트 무산, 교육만 진행
"정부 논의, 전체사찰 교육해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사찰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비와 함께 불자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득중 낙산사 종무실장은 "사찰 보안업체인 S1에서 제공해줬다"며 "요사채에 비치해놓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안전교육을 해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도 "1대를 설치했는데,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만큼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 안전을 사찰이 지켜준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8월 중 소방서와 합동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효과에도 사찰에 설치가 미미한 까닭은 무엇일까. 많은 사찰들이 비용문제와 함께 사찰을 대중시설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강릉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시와 소방서에 얘기했는데, 자부담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법회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부나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직접 구매하려 해봤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200만원이 넘는 고가인 까닭에 영세한 사찰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찰을 관리하는 불교문화사업단의 경우 2014년 기기 보급을 잠시 논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응급구급함 보급에 그쳤다. 정창진 불교문화사업단 교육연구실 팀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논의를 했지만 예산문제가 컸다. 1억원을 투입해 먼저 안전매뉴얼과 구급함, 안전손수건 등을 보급했다"고 소개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현재 동국대 응급의학과와 함께 연 1회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사회복지재단이 2012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과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국민안전처로 부처가 변경되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됐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당시 심정지환자와 외상환자 소생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연결한 생명네트워크 구축이 기획됐지만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대해 동국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 정부와의 접촉이 중요하다. 개별사찰 접근이 힘들다면 종단 차원에서 협의해볼만 하다"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1년에 1회 이상, 합동으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 종무소 직원의 안전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도 즐기며 100세까지 힐링합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1호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문을 열었다.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이하 100세 힐링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 · 정서 힐링 프로그램이다. 8월 10일 개최된 개소식서 어르신들이 다도 프로그램 시연회를 선보였다. 박아름 기자

"광복 71주년 코앞… 한반도 현실은 암울"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10곳, 8월 8일 남북평화 염원 기자 회견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10곳이 광복절을 7일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입장문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청년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광복71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이하 8.15불교단체연석회의)는 8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8.15불교단체연석회의는 "온 겨레가 감격스럽게 맞이해야할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의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다"며 "남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란 오명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단절과 봉쇄,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으로는 남북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남북갈등의 극대화 문제를 꼬집으며 "주변국들이 '사드배치 기지는 타격대상'이라 공언하는 상황에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며 "사드배치 결정은 안보와 동맹 논리만을 앞세우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내몬 것"이라 날 세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측과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 △종교 · 인도 지원 등 민간교류를 허용할 것 △남북 간 만남과 대화를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8.15불교단체연석회의엔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통일바루',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속해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도 '평단대' 놓고 내홍 조짐

총학 "대학 가치 훼손" VS 학교 "교육 질 담보 최선"

이화여대로 촉발된 평생교육단과대학(이하 평단대) 사업 논란이 동국대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평단대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고, 학교 당국과 총동창회는 사업 지지를 호소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평단 사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선정 두 달 만에 신입생을 선발한 뒤 2학기 동안 단과대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신임교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도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평생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와 학교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국대도 정책위원과 총동창회의 성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동국대 정책위원들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평단대의 교육환경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총동창회도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교를 빛낼 인재를 배출할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고

본사 사옥 이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신사옥을 마련해
8월 26일 이전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새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중앙승가대학교 '4년 단기출가자' 모집

✓ 'Uni-출가' : University + 출가

Uni-출가는? 유니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교 4년간의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스님으로서 전법과 수행에 매진하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출가의 모델

• 모집대상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단기출가(Uni-출가) 경험 희망자

• 신청자격
고등학교 재학생 / 고교졸업학력 이상 및 만 50세 미만인 자

• 문 의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031) 980-7736, 7713~5

✓ 'Uni-출가' 개요
• 청소년 출가자는 '청소년출가 특별법'에 의해 행자교육이 면제됩니다.

사미(니)계 수계 ▶ 중앙승가대학교 입학/졸업 ▶ 스님 (출가 수행자) / 사회 전문 직업인 종사

✓ 특전 및 진로

• 문학사 학위 취득 • 등록금/기숙사 4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 혜택
• 해외자매결연대학(대만 불광/남화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남천대학, 필리핀 광명대학, 일본 교토 불교대학) 교환학생 : 학비 · 기숙사 전액지원
• 군법사 자격부여 : 남 · 여 지원가능(국방부지정 군종장교 후보생지원대학)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및 1급 응시자격 부여 : 복지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
• 불교심리상담사, 템플스테이 지도사, 문화재 준학예사 취득 및 지원 자격 부여 • 사찰/종단 종무 행정직 취업

10118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중앙승가대학교 Tel 031-980-7736, 7713~5 Fax 031-980-7778 https://www.sangha.ac.kr